

배움의 계절, 불교 박사 대거 탄생

동국대 상반기 불교박사 11명 배출

배움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상반기 동국대 일반대학원에서 11명의 불교박사가 탄생했다.

동국대 일반대학원은 가을 학위수여자 중 불교를 주제로 한 박사에게 11명 배출했다. (응용불교학 전공, 한국불교와 민간신앙의 융합관계 연구-삼국유사를 중심으로) △김성욱 (불교학 전공, 다르마끼르피의 자증(自證) 연구) △자명 스님 (불교학 전공, 선문답을 통한 수행법 연구) △송인범 (선문화 전공, 깨달음의 구조와 본질 연구-초기불교와 조사선을 중심으로) △이남경 (선종사 전공, 불교수행법의 심리 치료적 적용

에 관한 연구) △형운 스님 (응용선학 전공, 고승전의 선법 연구-선어 분석을 통하여) △문태준 (현대문화 전공, 서정주 시의 불교적 상상력 연구) △심해경 (고전문화 전공, 조선 후기 소설의 윤희구조 연구) △박소영 (한국사학 전공, 고려 후기 문목(雲默)의 '석가여래행적' 연구) △류형균 (미술사학 전공, 고려 사원 목탑지 연구) △양홍식 (동양사상 전공, 다산일미(茶禪一味)의 융화사상 연구) 등 11명을 배출했다.

불교 주제 석사로는 △손민아 (응용불교학 전공, '성업론'에 나타난 업의 성립과 아뢰야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왕섭 (불교학 전공, 비량(比量)의 확실성 연구) △김영아(설해) (불교학 전공, 결박

(samyojana)과 자아관념 관계 연구) △고슬기 (불교학 전공, 초기불교와 윌리엄 제임스의 자아관 비교 연구) △정원기(진량) (불교학 전공, 초기불전의 오온통찰 연구) △고유경(주오) (불교학 전공, 다르마끼르피의 타심론 연구) △기윤수 (불교사학 전공, 동악 이안눌의 불교관-사문학을 중심으로) △김애숙 (불교사학 전공, 해림의 백목론(白墨論) 연구) △홍현지 (응용선학 전공, 해암현문의 선사상 연구) △신제식(법찬) (선학 전공, 법안문의 선사상 연구) △문혜진 (인도철학 전공, 위대한 원승이왕 자따가 연구) △권원제(원제) (인도불교 전공, 마하뱌따리사가 속마에 나타난 정경 연구) △김지연(정문) (인

도불교 전공, 경량부와 설일체유부의 표의(表義) 연구) △최진영 (고전문학전공, 조선 중기 불가 유산기(遊山記) 연구) △이미정 (동양사학 전공, 명말 '가흥대장경' 편수와 강남 거사) △김현수 (미술사학 전공, 조선 후기 불화사(佛畵師) 일한 연구) △이광현 (미술사학 전공, 통일신라 금강역사상 연구) △최주연, 고려 후기 협지보살상(夾紵菩薩像) 연구) △문용호 (미술사학 전공, 조선시대 아미타 정도도 연구) △박근남 (불교미술 전공, 조선 후반기 제석전도 연구) △주나래 (불교미술 전공, 천은사 아미타극락회도 연구) 등이다.

학위수여식은 8월 19일 단과대학 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8월 10일 진관사는 독립운동가 사용된 태극기를 기념비로 제작했다.(상) 광복 66주년을 앞두고 불교계에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세미나가 연이어 열렸다.(하) 사진=박재완 기자

상반기 불교박사 인터뷰 | 송인범 박사

“돈오에 대한 의심에서 깨달음 연구 시작”



“조사선의 돈오법에 대한 의심이 깨달음에 대한 연구로 나를 이끌었다.”

상반기 박사 중 송인범 박사(선문화 전공·사진)는 ‘깨달음의 구조와 본질 연구-초기불교와 조사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 박사의 지도교수는 현각 스님이다. 송 박사의 논문은 338PP의 분량으로 매 챕터마다 도표를 통해 설명을 곁들인 점이 특징이다.

송 박사는 논문에서 붓다의 깨달음의 이상과 구조, 행상과 구조, 조사의 깨달음의 이상과 구조, 행상과 구조로 나눠 도표를 통해 설명했다.

송 박사가 생각하는 깨달음과 붓다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깨달음이 무엇이라고 개념화 시켜서 이해를 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는 불교학자 다이세츠 스즈키의 말로 깨달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송 박사는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 설명했다.

송 박사는 “붓다의 가르침은 간단하다. 현재의 삶을 ‘고’ 없이 ‘번뇌’ 없이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박사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특수 계층이 접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이나 도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지로 비추지는 것을 경계했다.

송 박사는 “깨달음이 중생들이 감히 접하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

“ 붓다가 전하려는 가르침은 삶의 순간에서 마음 씀 ”

라며 “붓다가 생로병사가 없었으면 여러 나 등정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듯 탐욕을 제거하고 무명을 제거 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송 박사는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성과 실천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송 박사는 “학식, 남녀, 사상, 국적을 떠나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조사선의 단박에 깨달았다는 문구에서 깨달음의 구조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단박에 깨달았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단박에 깨달은 것이 계속 유지되는가’는 의문이 계속됐다고도 했다.

2010년 수습 년간 몸을 담았던 문화재청에서 나오며 차일피일 미루던 박사는 문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송 박사, 송 박사는 선학사에서 박사를 취득하게 된 것이 하나의 인연법이라고 말했다.

송 박사는 “불교공부와는 본래 거리가 멀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에 심취해 성경을 읽고 관심이 많았다”며 “2005년 마음공부를 하기 위해 우연히 동국대 대학원 선학부에 입학하게 된 것이 인연이었다”고 소개했다.

논문을 내기 전 송 박사의 깨달음에 대한 생각은 확답이나 도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였다. 명상센터 등에서 마음 편하게 마음공부를 하고 싶다는 송 박사에게 깨달음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마음가짐, 또는 방식이었다.

노덕현 기자

“만해의 불교 근대화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석길암 금강대 HK센터 교수, 만해사상실천선양회 학술대회서

해방 이후에도만해 평화운동과 1994년 중단개혁운동 등 중단 차원의 개혁운동만 해도 두 차례가 진행됐다. 또 개인 혹은 개별 집단 차원에서 제기된 개혁론은 그 수를 헤아리기 쉽지 않을 정도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만해 스님의 ‘유신론’이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오현)가

2011만해축전을 앞둔 8월 4일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만해학회에서는 만해 스님의 ‘불교 근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이날 ‘(조선)불교유신론’, 반성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석길암 금강대 HK센터 교수는 “현대 한국불교의 현실은 간화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의 정체성을 강력히 주

장하며 그 차별성을 위해 ‘근대화’로 지칭되는 많은 부분을 스스로 단절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봉안사 결사가 평화운동으로 이어지며 만해로 표상되던 수많은 불교의 근대는 문히게 돼버렸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어 “평화운동이라는 새로운 단절에도 불구하고 만해가 생각한 개혁, 그리고 구체적 시안은 시대의 역류를 비집고 다시 솟아오르고 있다”며 “만해가 주장한 도심포교의 화두는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보삼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은 “만

해 스님이 독립운동가, 시인, 불교 대강백, 대선사로 남긴 발자취는 크고 뚜렷하다”며 “만해 한용운의 삶을 우리 삶에 대입시켜 현실적인 대립과 소외 갈등을 해소하는 불교사상의 현실적 적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해의 불교사상 및 계보’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김용담, 삶의 복원-한용운 사상의 계보 모색’과 유세종 한신대 교수의 ‘화엄과 혁명 - 54의 루선과 31의 한용운’ 발제도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일심교는 항일결사, 진관사는 항일지하본부”

김광식 교수, 학술대회서 주장

“항일 승려로 만해 한용운, 백용성 스님과 함께 백조월 스님을 같은 반열에 놓아야 한다. 백조월 스님의 일심교는 항일 운동의 비밀결사였으며, 진관사는 분부역할을 담당했다.”

2009년 5월 진관사 칠성각 해체 당시 발견된 항일자료를 계기로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사, 특히 초월 스님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 항일운동의 핵심적 위상을 지닌 도량으로 새롭게 부각됐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사진)는 8월 10일 진관사 청해루에서 열린 ‘한국독립운동과 진관사’ 두 번째 학술대회에서 초월 스님의 일심교의 실체가 항일결사였다고 밝히며 초월 스님을 항일 승려로서 지속적으로 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일심교’는 무엇보다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1939년 용산역 독립 나서 사건으로 초월 스님과 함께 일심교의 70-80여명에 달하는 승려들이 함께 체포, 구속되는 자료는 일심회가 비밀 결사체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불교계 독립운동사에서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의의와 위상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김광식 교수는 “이런 초월 스님이 진관사에서 불교청년들을 상해 및 만주 지역으로 보냈다는 증언이 있는 만큼 진관사의 독립운동 차원에서

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식 교수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먼저 초월 스님의 가문과 사상에 대한 연구, 진관사 독립운동본부로서 역할에 대한 연구, 한용운, 백용성 스님과의 비교 연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일심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구성원의 성격이 궁금하다”며 “용성 스님의 대각교 운동과 외형상 유사점이 보이기도 한다. 세 스님의 관계를 이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주현 경기도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상임연구원의 ‘(조선)독립선종과 민족운동’, 송명호 태극기전문가의 ‘진관사 태극기에 대한 재조명’ 발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인 마련되어 있다.

- 범패·작법무- 불교예술포럼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포럼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지와,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1년 9월 6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1년 9월 9일 금요일

교직원 양성 전문교육

제 78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첫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8월 중
- ◆ 개강일시 : 2011년 8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약간명)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청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